전) 전남도 행정부지사(행시 24회)

전)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

# 새누리-새정치 양자대결 '득표율 싸움'

## ( 7·30 재보선 누가 뛰나

새누리당 이중효 후보와 새정치민주연 합 이개호 후보의 양자 대결로 펼쳐지는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에 서 펼쳐지고 있다.

전반적인 판세는 전남이 새정치민주연 합의 정치적 텃밭이라는 점에서 이개호 후보의 우세 국면 속에서 이중효 후보가 뒤를 쫒는 형국이다.

일단 전남도 행정부지사 출신의 이개호 후보는 미로처럼 얽혔던 경선의 관문을 통과하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상태다.

첫 번째 고비이자 최대 관건이었던 김 효석 전 의원의 전략공천을 막아낸 뒤 이 석형 전 함평군수와의 여론조사 경선에 서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 을 뒤엎고 여유 있게 승리한 것이다.

이개호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가 공중 분해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낙담하지 않고 꾸준하게 지역 민심과의 소통을 이뤄오고 특유의 친화력으로 외 연을 확대하면서 경선 승리를 일궈냈다.

본선보다 치열한 경선을 통과한 이 후 보는 선거 기간 동안 지역 서민들의 삶과 소외이웃들의 애환을 챙기는 '가슴 따뜻

#### 담양·함평·영광·장성

한 선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우선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 경제 침체의 현실과 가정 경제의 어려움 을 들으며 현장 중심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재래시장을 방문해 지역 상인들이 말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청취에 나섰다.

경로당과 독거노인 가구를 직접 찾아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안정적 인 노후복지 대책과 함께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 정책 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4개 군으로 이뤄진 지역구 특성을 고려, 담양을 문화관광레저 도시 로 육성하고 함평을 서남권 생태전원 창 조도시로, 영광을 서해안 신산업 중심도 시로, 장성을 숲·물·인간이 함께하는 힐 링 메카로 만들겠다는 맞춤형 특화 공약 을 내놓았다. 이외에도 ▲'농어촌교육발 전특별법' 조기제정 ▲'제2 남도학숙' 건 립 지원 ▲어르신 틀니, 경로당 지원 확대 ▲지역인재육성기금 확충 등의 공약도 제시하고 있다.

이개호 후보는 "민생의 현장에서 마음 이 아려왔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며 무거



주요 ·전) 전남도지사 후보

경력 · 가천대 겸임교수



# 이중효, 변화 여론…두자릿수 지지율 기대 이개호, 본선보다 어려운 경선 승리 '여유'

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토로하며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는 민생을 챙기기 위해 서라도 호남 정치권의 분발과 정권 창출 에 밀알이 되겠다는 마음을 다지게 된다" 고 말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 주자였던 이중효 후보를 내

이 후보 측에서는 전남지사 선거를 통 해 인지도가 크게 높아진데다 순천 · 곡성 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 효과까 지 겹치면서 선 전을 자신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 정치의 변화를 갈망하는 여론 도 만만치 않아 최소한 두 자릿 수 지지율 이상 의 성과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 를 나타내고 있

다. 이중효 후보는 "어렵고 힘든 길 이지만 이번 출

마가 시대적 소명으로 확신하기에 주저없 이 나섰다"며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고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약으로 ▲담양 경마테마 파크 및 세계대나무박람회 성공적 개최 ▲함평 나비대축제, 국향대전 등 축제 극 대화 ▲영광 4대 종교 관광지 조성 ▲장 성 광주·전남연구개발(R&D)특구 활성 화 및 가족힐링관광지 조성 등을 제시했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기록으로 그린 초상화에 스민 혁명가 기상



(77) 정도전

יבא אין אין

"나 같은 정씨 강씨 권씨 최씨…. 이 나라의 모든 성씨를 합쳐서 뭐라고 하 는지 아느냐? 백성(百姓)이다."

하필, 마지막 회였다. 대하 사극드 라마 '정도전'에 나오는 주인공의 대 사에 빠져든 것은. 드라마 방영 초기 부터 화제를 모았건만 뒤늦게 정도전 에 매료됐다. 드라마 다시보기에 이어 밤마다 여말선초의 역사서적을 읽느 라 요즘 토끼 눈이 되어가고 있다.

나라의 주인인 백성이 안녕한 나라 를 꿈꾸었던 '혁명적 지식인' 정도전 의 위대성은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고 자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념, 새로 운 경제 체제를 펼칠 수 있는 민본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는 점인 것 같 다. '정도전과 그의 시대'의 저자인 역 사학자 이덕일 소장(한가람 역사문화 연구소)은 "소수의 권세가가 나라의 부를 대부분 독점하고 있었던 고려 말 의 상황은 소수의 갑과 다수의 을로 상징되는 한국사회의 현 상황과 다르 지 않다"고 지적하고 "오늘날 정도전 같은 인물이 자꾸 회자되는 것은 역설 적으로 그런 지식인이 필요한 시대라 는 반증"임을 강조한다.



권오창 작 '정도전 초 상' 〈현암사 제공〉

 $(1342 \sim$ 1398)의 모 습이 궁금 해졌다. 이 방원의 습 격으로 희 생당했던 삼봉은 고 종 때에 이 르러서야 복권되었 기에 영정 이 남아있

삼봉 정

전

도

을 리 없다. 다행히 역사 속으로 사라 진 옛 인물의 초상을 전통기법으로 그 려오고 있는 한국화가 권오창화백 (1948~ )이 지난 94년 삼봉의 영정을 제작해 국가 표준 영정으로 지정되면 서 삼봉의 사당인 경기도 평택 문헌사 (文憲祠)가 소장하고 있다. "온화한 빛, 엄중한 용모, 높은 덕과 하해 같은 관대함, 믿음성, 결단성, 큰 국량"등으 로 묘사되어 있는 삼봉에 관한 기록과 후손들의 얼굴을 살펴 완성된 영정에 서는 과연 '조선의 설계자'로서의 기 상이 느껴진다. 작품 '정도전 초상'은 문헌사에 소장된 좌상을 범본으로 한 입상화로 복식과 장식 등이 충실하게 고증된 것도 돋보인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 "호형호제 하는 사이…인사 지역독점 해소 역할 기대"

### 새누리 김무성호 출범으로 주목받는 박지원 의원

## 비박에 당권 넘긴 朴대통령, 정부 '친박' 체제 강화 새정치도 '말로만 변화'…혁신안 제대로 가동 안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여야 간의 상생 을 강조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이 주목받고 있다. 두 사람은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호형호제'하는 사이다.

이들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같은 시기 에 양당의 원내대표를 맡았을 때도 싸울 때는 싸우고, 협력할 때는 협력하는 선 굵은 상생의 정치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 았다. 특히 새누리당 김 대표가 전당대회 에서 '변화와 탕평'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호남소외 현상 을 타개하기 위한 박 의원의 역할이 기대

광주일보는 16일 박지원 의원을 만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체제가 정치권에 던지는 의미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체제 출범으로 박 의원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양당 대표 간의 소통과 협력이 우선 이다. 나는 옆에서 돕겠다.

-새누리당 김 대표가 상생의 정치를 내 세우고 있다. 야당이 취해야할 입장은.

▲좋은 일이다. 적극 협력하겠다. 진정 한 상생을 위해서는 야당은 야당다워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에 할 말은 해야 하 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취할 수는 없다.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협상과 양보도 해 야 한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새누리당 김 대표 가 탕평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탕평은 두 가지다. 국가적 탕평 인사 와 지역균형발전이다. 우리나라 권력서 열 10위 내에서 9명이 특정 지역 출신이 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당 대표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탕평을 실현할 수 있도 록 강력하게 건의해야 한다. 그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 체제의 의미는.

▲박근혜 정권의 오만이 김 대표 체제 를 만들었다. 당심과 민심이 변화를 원했 다. 비박이 당권을 잡음에 따라 박 대통 령은 정부를 친박 체제로 만들어 가고 있 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 리, 이병기 국정원장, 김기춘 비서실장 유 임 등이 근거다. 하지만 변화의 거대한 흐 름은 막을 수 없다.

-변화와 혁신을 새정치연합이 아닌 새 누리당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 같다.

▲정의화 국회의장, 김무성 대표 체제 등은 새누리당의 변화를 상징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변화와 혁신을 말로 만 한다. 새정치를 상징하는 안철수 의원 이 대표로 있지만 가시적인 결과는 찾아 보기 힘들다. 실제로 출판기념회 제한 등 당 혁신안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호남 정치권의 위기를 말하는 목소리

▲차기 전당대회나 총선과 대선을 앞 두고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민 심이 당심이고 천심이다. 지방선거와 재 보선 과정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호남 민 심의 요구는 이미 드러났다.

-호남 정치권의 존재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응집해야 한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 호남은 새정치연합의 심장이다. 심장이 뛰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의원 들이 새로운 변화와 비전을 위해 함께 뛰 어야 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새정치, 수도권·충청권 참패 조짐

#### 공천 파동 후폭풍…재보선 여론조사 예상밖 고전

7·30 재보선 여론조사 결과 새정치민주 7%, 새정치연합 박광온 후보는 21.5%를 연합의 참패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 한 상황에서 새정치연합 후보들이 예상 밖 에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은 '공천 파동'의 후폭풍으로 풀이된다.

16일 중앙일보 조사연구팀과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이 지난 10~15일 격전지 10곳의 유권자 800명씩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도권과 충청에서 새 누리당 후보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동작을에선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가 43.2%를 기록, 새정치연합의 기동민 후보 (15.0%)와 정의당 노회찬 후보(12.8%)를 앞섰다. 수원 을에선 새누리당 정미경 후보 (44.3%)가 새정치연합 백혜련 후보(20.0%) 를 22.3%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 병에서도 정치 신인인 새누리당 김 용남 후보(36.1%)가 새정치연합 손학규 후보(34.7%)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수원 정은 새누리당 임태희 후보가 33.

기록했다.

경기 김포에서도 새누리당 홍철호 후보 (37.0%)가 새정치민주연합 김두관 후보 (28.9%)를 앞지른 반면 경기 평택 을에서 는 새정치연합 정장선 후보(37.7%)가 새 누리당 유의동 후보(33.0%)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충청권에서도 새누리당이 강세였다. 대 전 대덕에선 새누리당 정용기 후보(43. 0%)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순 후보(33. 1%)를 앞섰다. 충주에서도 새누리당 이종 배 후보(46.7%)가 새정치연합 한창희 후 보(26.3%)를 앞섰으며 서산·태안에서도 새누리당 김제식 후보(35.1%)가 새정치연 합 조한기 후보(23.6%)보다 우위였다.

전남 순천 · 곡성에선 새정치연합 서갑원 후보가 37.1%를, 이정현 후보가 28.1%를 기 록했다. 이번 조사의 평균 응답률은 27.6%, 최대 허용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5%포인트였다. /임동욱기자 tuim@

